

지역 매 아리



청하면, 신금 입석산 돌레길 대청소

김제시 청하면(면장 소연숙)은 지난 19일 '입석산 돌레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앞서 행복홀씨 회원, 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금 입석산 돌레길 주변을 중심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일제 대청소가 이루어진 곳은 '입석산 돌레길 조성사업'이 확정되어 11월 말까지 완성 예정인 곳으로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 돌레길 대청소에 한마음이 되어 진행되었다.

특히 환경정화활동에 적극 동참한 분들로 인해 더욱 깨끗한 돌레길이 되었으며, 돌레길을 즐겨 찾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산책길과 휴식처를 제공하게 되었다. 소연숙 청하면장은 "주민들이 돌레길 청소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정착시켜 깨끗한 청하면 만들기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으뜸행복 자족도시 실현

20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국가예산 5000억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박성일 군수는 22일 소득과 삶의 질 높은 대한민국 으뜸행복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2020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정시책, 정부 경제 정책방향, 생활밀착형 SOC사업 등 군 정책과 연계한 신규 국가예산 사업 79건 총사업비 3,267억원(국비 2,178억) 규모의 미래성장 동력 사업 발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번 발굴된 국가예산 사업들은 도·부처 의견수렴과 지역내외 전문가를 활용해 사업조서를 보강하고 정부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구체화 시켜 국가예산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완주 발전을 견인할 선도사업으로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박 군수는 "민선7기 완주군은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비전실현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기틀 마련을 위해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지방자치경쟁력 최상위 인증

## 완주군, 상위 10위권내... 전국 4위, 경영활동 2위

완주군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지방자치경쟁력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인증받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시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22일 완주군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제23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모델 분석 결과 종합 경쟁력 부분 전국 4위, 경영활동 2위를 기록하며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2018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에 따르면 완주군은 전국 기초 군 평균점수(478.9점)를 크게 웃도는 총 531.95점으로 전국 군 단위 전국 4위에 선정되며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국 상위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자족도시 완주'를 군정목표로 삼고, 일자리·삶의 질·농업농촌 활성을

피하면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인구를 늘려가고, 이것이 재정확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갖는 정책이 주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완주군은 지역경제 활성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영활동부분은 전국 군 단위 2위의 기록을 세웠는데, 실제 기업에 맞춤형 행정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전북 1위(2015년 기준 4,775만원)를 기록했으며, '2017년 전국기업환경지수'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한바 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관계자는 "완주군은 15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과 지방분권 주민 참여형 행정서비스 강화, 지역균형발전 추진, 아동안전

체계 구축을 통해 균형 있고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빠른 시기 10만 시대를 개막하고, 전북 4대 도시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의 평가는 완주군의 경쟁력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 번 입증 받은 것으로, 앞으로 주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1996년부터 매년 전국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2개월간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 인적자원·토지자원·인프라자원·경제문화자원·행정운용효율·재정운용효율·세계화·인구동태·주민생활 등 94개의 지표가 망라됨으로써 시군 경쟁력을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 부모참여 확대되는 보육환경 열린어린이집 조성

## 완주군, 어린이집 공간 개방 등 11개소 지정 ... 아동학대 근절대책 일환

완주군은 어린이집 공간 개방 및 부모 참여 확대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어린이집 11개소를 지정, 발표했다.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열린어린이집은 보육실 내부공간, 부모참여실 등 시설개방은 물론, 어린이집 행사나 부모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형태이다.

이번에 지정된 열린어린이집은 지난해에 이어 재지정된 끝내래어린이집

등 4개소와 신규 지정 7개소로 총 11개소이다.

군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접수된 11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간개방성과 부모 공용공간, 부모 개별 상담, 온라인 소통창구 등 6개 항목의 현지심사를 거쳐 지난 18일 완주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했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 선정시 가점부여, 보조교사 우선 지원,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1년간의 지정

기간 만료 후에도 매년 세부선정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재지정도 가능하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열린어린이집은 부모와 영유아, 어린이집이 함께 협력하여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의미를 담고 있다"며 "매년 개방성이 높은 열린어린이집을 발굴 지정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김제시, 정부합동평가 및 정부혁신 대비 워크숍 개최

## 소통과 협업 중심 역량강화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김제 금산면 일원에서 정부합동평가 및 정부혁신 담당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2019년(2018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지표의 전반적인 이해를 통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혁신의 핵심가치인

사회적 가치, 협업과 참여, 신뢰받는 정부에 대한 공유를 토대로 체계적인 평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김제시는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실적을 4차례의 보고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였으며 금번 워크숍에서 합동평가 전문가의 컨설팅을 진행하여 앞으로 두달여 남은 평가 대응 개선 방향에 대해 고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변화" 주제의 특강 청취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의 주요역진 흐름을 이해하고 우수사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시 발전을 위한 사례를 접목하는 등 직원들의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였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의 구현하여 국정시책 합동평가와 정부혁신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얻자"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지난 19일 김제관아에서 김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 국가사적 김제관아, 공직자 교육공간 탈바꿈

## 시,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재 만들기 앞장

김제시는 지난 19일 국가 사적지이자, 조선시대 공직자의 집무공간이었던 김제관아에서 김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마쳤다.

이는 '문화재'라는 공간을 소중하게 보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고장의 행정을 이끌어가는 공직자부터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먼저 알고 활용하여, 시민들과 함께 과거로부터 현재에 까지 함께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김제시 문화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또한 이날 김제시장과 공직자들의 큰 호응속에 전국 판소리대회 정원을 수상한 최영인 명창과, 전주대사습놀이 고수부 장원을 수상한 오흥민 명고등 전라북도에서 활동하는 최고수준의 명인들을 초

청하여 흥겨운 판소리 공연을 시작으로 한국종교교육화합장을 역임했던 원광대학교 김귀성 명예교수의 종교차별 예방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했던 공직자들은 "문화재란 보고, 느끼고, 배우는 공간으로 인식했지만 이렇게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여 참여해 보니 옛사람들이 느꼈던 운치와 정서를 직접 느껴볼 수 있어 좋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날 인사를 통해 "옛 공직자들의 집무공간인 동헌의 현판에 '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근민헌'이라 칭하였듯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위해선 모든 달하있는 공간부터 시민들에게 열어 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청회 개최

김제시는 최근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문가와 주민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8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요촌동 일원(중심시가지형)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용과 파급효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요촌동 일원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역자원인 쌀과 축제를 테마로 하여 도시경관개선, 청년 창업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목표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비 250억원(국

비150, 도비25, 시비75)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11월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신청을 한 후, 내년 상반기 중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착수하여 조기에 사업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광주대학교 김형집 교수, 전북대 황지욱 교수, 전주대 최영기 교수, 김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고 현장감 넘치는 토론을 진행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